

2019년 통권 제 27권 제 3호

# 2019年度 史學科 秋季學術古蹟踏查



亞洲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 목차

◎ 답사 일정

◎ 답사를 준비하며

## <분단의 끝, 우리가 걷는 길>

I. 우리가 가는 길 .....	1
1) 파주 지역개관 .....	2
2) 연천 지역개관 .....	4
3) 고양 지역개관 .....	6
II.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 .....	8
1) 두 조각의 한반도, 6.25 한국전쟁 .....	9
2)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임시고향, 임진각 .....	14
3) 통일 염원의 장소, 도라산역 .....	16
4) 북한 땅을 마주하다, 도라전망대 .....	18
5) 북한의 은밀한 남침, 제 3땅굴 .....	20
6) 평화 통일의 의지를 위한 공간, 납북자 기념관 .....	22
III. 전쟁의 요충지와 전쟁 중 희생된 사람들 .....	24
1) 삼국시대의 DMZ, 호로고루성 .....	25
2) 동맹국의 숭고한 희생, 영국군 설마리 전투비 .....	27
3) 민간인 학살사건의 아픔, 금정굴 .....	29
IV. 참고문헌 .....	31

## 답사 일정



### 2019년 사학과 추계 학술 고적 답사

#### 1일차 <9월 27일 금요일>

09:00 ~ 09:30 집합 및 인원체크  
 9:30 ~ 11:30 이동(임진각)  
 11:30 ~ 12:20 점심 식사  
 12:20 ~ 13:00 임진각 관람  
 13:00 ~ 13:10 이동(도라산역)  
 13:10 ~ 13:50 도라산역 관람  
 13:50 ~ 14:00 이동(도라전망대)  
 14:00 ~ 14:45 도라전망대 관람  
 14:45 ~ 14:55 이동(제 3땅굴)  
 15:00 ~ 16:00 제3땅굴 관람  
 16:00 ~ 16:10 이동(납북자기념관)  
 16:10 ~ 17:00 납북자기념관 관람  
 17:00 ~ 17:20 이동(헤이리마을)  
 17:25 ~ 18:30 저녁 식사  
 18:30 ~ 19:00 이동(숙소)  
 19:00 ~ 세미나 및 자유시간

#### 2일차 <9월 28일 토요일>

8시 30분 준비 및 출발  
 08:30 ~ 09:00 이동(아침식사)  
 09:00 ~ 10:00 아침 식사  
 10:00 ~ 11:00 이동(호로그루성)  
 11:00 ~ 11:30 호로그루성 관람  
 11:30 ~ 12:00 이동(영국군설마리전투비)  
 12:00 ~ 12:40 영국군설마리전투비 관람  
 12:40 ~ 13:40 점심 식사  
 13:40 ~ 14:40 금정굴  
 14:40 ~ 15:10 금정굴 관람  
 15:10 ~ 아주대학교 이동

## 답사를 준비하면서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사학과 학생회 ‘더함’의 학생회장 18학번 이현석입니다. 어느덧 2019학년도 학생회장의 역할을 맡게 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좋았던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지난달들을 돌아보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항상 학우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27대 학생회 ‘더함’은 처음이 아닌 두 번째 답사이기에 지난 춘계 학술 고적 답사보다 더 의미 있고 완성된 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춘계 학술 고적 답사는 사학과 답사가 시작된 이래로 잘 다뤄지지 않았던 현대사를 주제로 선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저희 27대 학생회는 현대사의 중심에 있는 한국 전쟁을 답사에서 다루고자 경기 북부지역으로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부학생회장과 국장들로 구성된 임원진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2019년 춘계 학술 고적 답사에 대해 ‘분단의 끝, 우리가 걷는 길’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를 답사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을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아픈 역사인 한국 전쟁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조상들의 노고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여러분께 만들어드리고자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춘계 학술 고적 답사에서는 흔히 방문하지 못할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DMZ 방문입니다. DMZ를 방문을 통해서 북한군이 직접 파놓은 땅굴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망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DMZ 방문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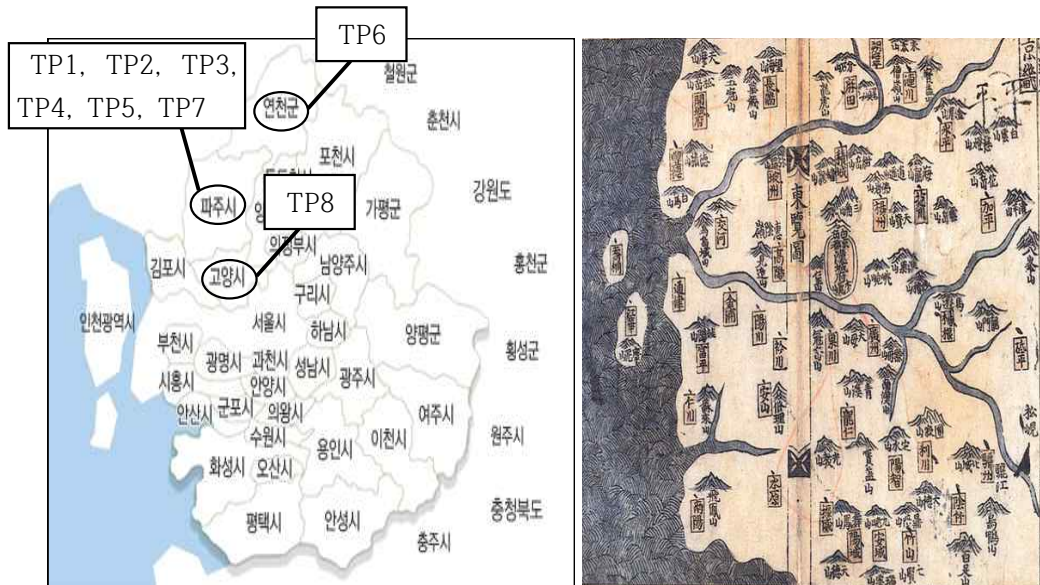
춘계 학술 고적 답사를 준비하며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고생한 ‘더함’의 임원진 부학생회장 슬비, 학술국장 예찬이, 홍보국장 유나, 사무국장 연주 그리고 역사기행반 반장의 역할도 맡으며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기획국장 성은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 답사 진행과 지역 방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박구병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그리고 박준용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이라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록 작성을 위해 열심히 고생해준 19학번 역사기행반 학우분들께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2019년 춘계 학술 고적 답사가 지난 학술 고적 답사처럼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되기를,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18학번 이현석

**분단의 끝,  
우리가 걷는 길**

# I. 우리가 가는 길



9월 27일 (금)	TP1	TP2	TP3	TP4	TP5
	남북자 기념관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제 3땅굴
9월 28일 (토)	TP6	TP7	TP8		
	호로고루성	영국군 설마리 전투비	금정굴		

## 파주 지역개관

19 김하연



▲ 파주지역 고지도

중이다. 또한, 서울과의 버스 연결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파주시의 전경을 자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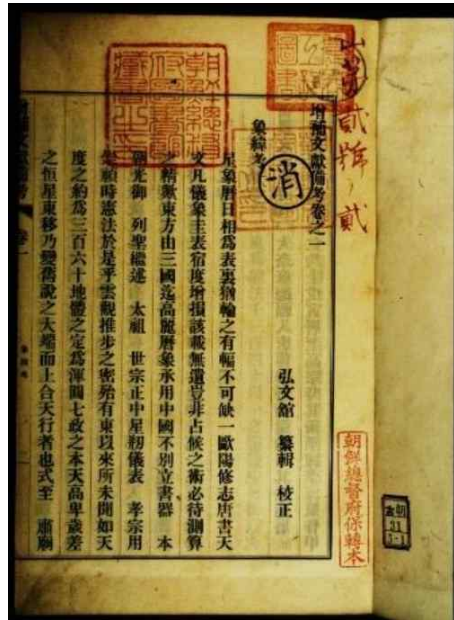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파주시는 동쪽으로는 양주시와 연천군, 서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남쪽은 고양시와 접한다. 또한, 파주시는 이번 답사의 주제인 ‘분단의 끝, 우리가 걷는 길’에 맞게 북서쪽은 군사분계선에 접하고 서부 최전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사의 깊이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판문점 사이 통일로는 중앙을 통과하며, 한강과 임진강을 연결한 자유로가 남북교류의 요충지가 되었다. 2001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철도복원 공사가 시작되었고, 임진강역, 도라산역이 개통되었으며 경의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

## 파주지역 자연환경

파주지역은 마식령산맥의 말단부에 속하며, 북서쪽에는 임진강이 서남류하고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동쪽에는 감악산·노고산·금병산·팔일봉·앵무봉이 남쪽에는 황룡산·명봉산 등이 양주시와 고양시의 경계를 이룬다. 또한, 중앙에는 파평산·봉서산·월룡산·박달산 이 남쪽으로 가면서 낮게 펼쳐져 있다. 주요 하천은 북서쪽과 서쪽 경계를 흐르는 임진강, 서남쪽을 흐르는 한강이 있다. 임진강 지류로 서남류하는 남월천, 북서류하는 문산천, 서류하는 곡릉천 등이 있으며, 이 하천들이 지나가는 시의 서쪽에는 해안 평야가 넓게 전개되어 곡창지대를 이룬다. 임진강의 하류 지역은 만조 때 바닷물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탄현면과 장단면의 해안가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한다. 마지막으로 파주지역의 지질은 시생대에 속 하는 운모편마암, 편마암, 석회암이 분포한다.

## 파주지역의 역사

파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증보문헌비고』라는 책에 나온다. 파주는 본래 고조선의 땅이었고 삼한시대에 마한의 속했다. 삼국시대의 최초로 파주에 자리 잡은 나라는 백제였으나 고구려와 계속된 영토싸움으로 인해 475년에는 파주 땅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에 신라의 진흥왕이 파주를 차지했다. 세월이 흘러 1170년(의종24), 파주지역은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보현원의 바로 옛 장단군 지역이기 때문에 무신정변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파주’는 조선시대에 지금의 명칭을 얻었는데 이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세조가 이곳은 왕비의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원평도호부로 불리던 이 지역을 ▲ 증보문헌비고



‘목(牧)’으로 승격시키고 명칭을 파주로 고쳤다고 한다. 파주지역에는 과거에 칠중하라 불렀던 임진강을 비롯해 한강과 공릉천, 문산천, 갈곡천, 비암천 등 크고 작은 강이 많이 존재한다. 파주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독과 제방이 많았다. 그래서 파주는 ‘독 위의 마을, 독과 제방이 많은 마을 또는 독, 제방 역할을 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파주는 한양에서 가까워 임진강을 따라 각종 유통이 발달하였는데 그 중 고랑포와 문산포가 물류 집산지로 유명했다. 고속도로가 뱃길을 대신하기 전까지 임진강변은 사람들의 흥겨운 노랫가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임진강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줬음을 알 수 있다.



## 연천 지역개관

19 한가연

지금의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연천은 아이러니하게 과거에도 영토의 경계선이 되고 있었으니 백제와 고구려, 신라와 고구려가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다. 삼국의 접경지이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 중 호로고루는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담고 있는 유적지이다. 빈틈없이 쌓아올린 성벽은 고구려의 기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700년의 역사 속 승리의 영광과 패배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번 연천지역 답사를 통해 각각의 유적지가 품고 있는 역사의 옛 자취를 느껴보길 바란다.



연천군은 동쪽은 포천시, 서쪽으로는 파주 ▲ 연천 지역 고지도  
시, 남쪽은 양주·동두천시, 북쪽으로는 강원

철원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휴전선의 영향을 받아 지역 발전이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 매우 더디고, 수도권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대표적 지역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한 땅과 북한 땅을 유일하게 관통하는 임진강과 은하수 같이 넓고 큰 여울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한탄강이 흐르고 있으며 서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 역사에서 연천군만큼 수난이 잦았던 도시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국경지대였으며, 한국전쟁 때는 격전지였다. 1945년 6·25전쟁이 끝나고 현재의 모습으로 수복되었다. 연천군은 한반도 중심이라는 불리는 명성만큼 전곡리 선사유적지, 고인돌 유적지, 승의전 등 여러 유적지와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연천군 일대는 475~551년에 최초로 공목달현으로 불리기 되었다. 백제·고구려 이후 한강 유역을 지배하게 된 신라 때에는 공성현으로 개칭되며, 고려 태조 때에 장주로 불리게 된다. 995년(성종 14) 포천과 아울러 도단련사(都團練使)가 두었으나 1005년(목종 8)에 폐지되었다. 1018년(현종 9) 장주가 다시 동주(東州: 지금의 철원)에 속하게 되었다가 1175년(명종 5) 철원과 분리되고, 1309년 장주의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의 지명인 연천(漣川, 漣州)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 연천지역 문화유산



▲ 연천 송의전지

연천군 심원사지부도군, 정발 장군묘, 박진 장군묘, 미수 허목 묘역, 낙선군 이숙 묘 등으로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임장서원, 연천향교, 팔효문, 남순하 효자문의 문화유적이 있으며, 이는 고구려 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연천 지역은 사방에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선사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연천 양원리 고인돌, 연천 차탄리 고인돌, 연천 학곡리 고인돌, 연천 통현리 고인돌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연천 학곡리 적석총, 백제 시대의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고구려 시대의 연천 신답리 고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능, 고려 시대 왕을 모신 사당터인 송의전지, 조선 시대의 오봉사지부도,

## 고양 지역개관

19 김혜성



### ▲ 고양지역의 고지도

구릉과 하천 퇴적지 곡저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동북쪽으로는 양주시, 동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하여서 김포시, 북쪽은 파주시와 맞닿아 있다. 서남부 쪽은 한강의 범람원으로써 넓은 충적지로 만들어져 있다. 창릉천의 강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곳에 범람원, 하중도가 발달되어 있다. 지질은 남부는 화강편마암, 동부는 결정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형적인 특징으로 논농사가 많았고 주요 농산물인 쌀의 질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오랜 분단의 시기를 거쳐 왔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왔다. 이념만을 강조했던 분단의 시기에 수많은 무고한 자들의 희생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가는 고양시도 그러한 사건이 많았다. 답사지로 가는 고양시 ‘금정굴’을 통해 민간인 학살사건의 아픔을 느껴보길 바란다.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시로,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여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와 서쪽으로는

## 고양지역의 유래와 역사

고양지역은 사람의 거주 이력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로 갖은 유물의 출토를 들 수 있다. 대화동에서 발견된 빗씨, 일산 지역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문봉동과 신원동의 고인돌, 성사동의 동모주범 등이 발견되었다. 과거 백제의 땅이기도 했던 고양지역에서 최근에 백제의 초창기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됐다. 이렇듯 다양한 선사유적들이 고양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고양지역에는 최영(崔瑩)의 묘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고릉이 위치해있다.

## 고양지역 문화유산

고양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고양송포호미걸이(高陽松浦)와 경기소리취모

리잡가 등이 있다. 고양송포호미걸이는 칠월칠석날 전후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농기에 호미를 걸어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행해지던 민속놀이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고양지역은 그 지형적 특징에 의해 벼농사가 발달하였



▲호미걸이/상산제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몇 지역에서는 풍년을 기리는 놀이를 행하였는데 이 대표적인 놀이가 고양시 송포의 호미걸이이다. 이 지역에서 7월 7일에 두벌 혹은 세벌 김매기가 끝날 때에 맞춰 농사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호미걸이라는 놀이를 행하였다고 한다. 농기의 의미는 마을 공동체의 두레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농기의 버릿줄에 농기인 호미를 켜서 매어두는 것은 마을 일원

의 휴식을 상징함과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호미걸이의 놀이방법은 ‘상산제’, ‘대동고사’, ‘유가제’, ‘뒷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농기를 앞세워서 마을에 위치한 도당산에 올라서 상산제를 하는 것으로 놀이가 시작된다. 농사일을 서로 협력하고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체인 두레패의 우두머리가 도당나무의 앞에 서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염원하는 제사이다. 상산제를 거행한 후에, 농사일을 서로 돕는 조직체인 두레패가 마을로 내려온다. 그 다음엔 마을의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대동고사’를 행한다. 이 고사(告祀)라는 것은 각 여성들이 가정의 소원을 빚과 동시에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덕망 높은 마을의 노인 중에 여성이 제주(祭主)를 맡아서 비손을 행하게 된다. ‘대동놀이’는 <기(旗)세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는 기절받기라고도 해서 신 두레패에서 기가 절을 한 후, 구 두레패에서 기가 반절하는 형태로 행하여진다. 이 과정에서 체력이 좋은 인물을 선정하여 필로 된 무명인 필목을 상품으로 주게 된다. 여기에서 선정된 기수는 이 필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채주를 부린다. ‘유가제’라는 것은 두레패와 같이 마을과 가구들을 훑으며 풍악을 울리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뒷풀이’는 유가제 후에 호미걸이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그 놀이의 마무리를 하듯 풍물을 치면서 재미나게 노는 행위를 뜻한다.

#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

1. 6.25 전쟁
2. 임진각
3. 도라산역
4. 도라전망대
5. 제 3땅굴
6. 납북자 기념관

## 두 조각의 한반도, 6.25 한국 전쟁

19 이혜린

### 6.25 전쟁의 배경

우리가 이번에 답사할 ‘파주, 고양, 연천’ 세 지역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6.25 한국 전쟁’이다. 6.25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 지역을 답사함으로써 우리는 비극적이었던 분단의 역사를 실감하고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제 치하 속에 고통 받던 조선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군사적 편의에 따라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38선은 소련에 의해 정치적 경계선으로 변질되었고, 소련은 공산화된 정부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어떠한 통일된 한반도 정부 설립도 반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소총회로 문제를 넘겼지만 이는 한반도의 분단을 가속화하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이 총회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소련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UN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출입을 막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게 되면서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남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시적인 경계선일 줄 알았던 38선은 결국 현재까지도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버린 뼈아픈 전쟁의 상처로 남았다.

### 6.25 전쟁의 진행 과정

6.25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 약 3년 동안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위 38도 선을 넘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남한의 많은 병력이 휴가, 외출로 나가 상당수의 병영이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치밀한 계획 하에 미리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 남침하는 북한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군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무서운 기세로 남한을 공격해 내려갔다. 결국,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점령당하게 된다.

구분	전사/사망	부상	실종/포로	계
한국군	137,899	450,742	32,838	621,479
유엔군	37,902	103,460	9,767	151,129

▲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현황

단위: 명

당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국제연합군인 유엔군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남한에 도착했지만, 북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의 계속된 공격 속에 남한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후 연달아 곳곳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승리함으로써 1950년 9월 28일 남한은 서울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38선을 넘어 북쪽의 평양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자 북한을 돕던 중공군이 위협을 느끼고 ‘인해전술’을 펼치며 압록강을 넘어 내려오자 다시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서울을 내준(1.4 후퇴)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은 후 70여 일만에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이후 전선이 38도선 인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소련의 제의로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다. 협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38도선 인근에서는 백마고지 전투 등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결국, 협정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설치, 휴전선 확정, 중립국감시위원단과 군사정전위원회 설치 등을 합의한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한반도를 뒤흔든 3년간의 전쟁이 정전되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총성은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조각으로 남게 되었다.

## 6.25 전쟁 후의 모습

6.25 전쟁은 무력만으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다. 6.25 전쟁은 인적, 물적인 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나 인적인 면에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쟁으로 인해 국군은 약 60만 명, 북한군은 약 8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단순히 군인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구분	세대수	인원
남한피난민	421,228	1,714,992
월남피난민	135,745	618,721
전재민	656,949	3,419,996
원주민민	890,739	4,375,413
전재고아	—	48,322
기타	—	11,857
총계	2,104,661	10,189,301

▲ 전재민(戰災民) 종합 현황(1952.3.15.)

단위:명

비고: 가. 전재민은 직접 전화를 입은 남한의 민간인임.

나. 원주민민(原住貧民)은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임.

다. 전재고아(戰災孤兒)는 당시 공·사립 수용소에 수용보호중인 자임.

라. 기타는 전국 각지의 부랑아 및 결인(乞人)임.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만큼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 역시 상당했다. 10만 명에 이르는 전쟁고아와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과 전재민들은 여전히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의 상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물적인 면에서도 남북한 모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학교, 병원, 도로, 공장 등 사회 기반 시설과 생산 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중,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가 해체되었고,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을 통해 미국의 대중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6.25 전쟁의 흔적으로는 ‘땅굴’이 있다. 우리가 이번 답사를 통해 보게 될 제 3땅굴 역시 6.25전쟁 당시 만들어졌다. 땅굴은 분단의 상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땅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굴은 북한 괴뢰 정권이 남침을 목적으로...”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번 답사를 통해 땅굴을 누가 어떠한 이유로 뚫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진 분단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쟁 중에 나타난 납북자와 민간인 학살사건

한국전쟁이 끝난 뒤 전쟁의 피해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북한에 납치된 남한 민간인의 가족들은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규탄하고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6.25 전쟁 당시 납북되어 희생된 사람들을 망각하고 있으며 이번 답사의 납북자 기념관을 방문으로 북한의 반인륜범죄와 끝나지 않는 비극을 알리고



▲ 6.25 납북장면 재연하는 모습

자 한다. 또한 정부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현재 북한은 납북자는 없으며 월북자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납북자는 6.25 전쟁 전 전사 피해자와 전쟁 후의 비(非)전사 피해자로 나뉜다. 그들은 6.25 전쟁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었으며 북한에 거주하게 된 자들을 의미한다. 납북 경위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힘들어서 북한은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 당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연행되거나 전쟁물자 운반 등의 노역으로 인해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납북자들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이 설치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민간인 학살사건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는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며 아직까지도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충북대 박선주 교수는 충남 아산시에서 6.25 전쟁 당시 학살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뱃조각 3246점을 발굴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유해들이 1951년 1.4후퇴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들로 “최소 209”명이라고 말했다. 유해발굴로 피해자들의 유골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착용했던 비녀, 어린 아이들의 유골 등도 발견되었다. 박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진실화해법)’을 계기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을 바탕으로 유해발굴을 조사했다. 전국 169곳이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로 거론되었으며 지표조사 결과 총 59곳에서 유해발굴이 나오게 되었고 우선발굴 대상지로 39곳이 추려졌다. 그렇지만 진실화해위 활동종료로 유해발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유족들과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민간차원에서 이어졌으며 현재에도 유해를 찾는데 힘쓰고 있다. 시민들이 자

발적 봉사와 모금으로 유해발굴은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관련법이 만들어져 국가차원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은 계속되어야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

민간인 학살사건의 아픔을 담은 곳 중, 우리는 이번 답사로 고양 금정굴을 방문하면서 금정굴 사건의 아픔을 기억해보고자 한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이후, 고양 일대에 북한군이 점령하면서 북한군을 도와준 부역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적법한 절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고양 경찰서 경찰들은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그의 가족들을 연행하고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며 경찰서로 이송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20명~40명을 금정굴로 끌고 가 총살하고 암매장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가해자가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로 확인했으며 부역자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4.3 사건이 있듯이 고양시 주민들에게는 금정굴 사건은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번 답사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한번 다시 조명하여 망각되지 않도록 기억하기를 바란다.

##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

평양방면이라고 적혀있지만 평양으로는 갈 수 없는 현실,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역 중 하나이다. 당장이라도 사람과 화물들을 실은 기차들이 지나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지만 ‘분단’이라는 현실을 지닌 한반도에서 이 역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군사분계선의 최북단에 있는 도라전망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가깝고도 먼 북한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반도는 현재까지도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며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수많은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임시고향, 임진각

19 김영진

임진각은 과거 우리나라의 전쟁에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그 저 관광지가 아닌 우리민족의 아픔을 알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다. 한국전쟁 휴전으로 군사분계선이 생겨나고 피난을 나온 이북의 많은 이들이 고향을 잃고 그들의 임시 거처가 된 곳이다. 이후에도 이북의 고향에 가지 못 하는 실향민들은 여전히 임진각을 찾아 고향을 그리며 각종 연례행사를 이곳에서 보내곤 한다. 그래서 임진각은 고향을 잃은 실



▲ 임진각의 모습  
향민들의 임시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으로 7km 정도에 위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과 닿을 위치해있다. 임진각의 뜻은 ‘임진강의 누각’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진 대지 6,000평, 연건평 2,442㎡의 편의시설이다. 각종 관람거리가 존재하며 위쪽 전망대에서는 여러 가지의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임진각 자유의 다리 모습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자유의 다리는 1953년 건설되었으며 길이가 83m, 너비 4.5m~7m, 높이 8m로 목조와 철조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한국군 포로 1만 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라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일로와 자유로를 통한 서울과의 교통도 편리해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찾는다.  
임진각 마당에는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강산의 모습이 담긴 망배단이 있다. 1985년 9월 26일에 조성된 시설물로 정초에는 연시제, 추석에는 망

향제를 올리고 북쪽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그리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망배단에 관련된 시인 권오순의 「임진각에서」를 보면 그 당시 관광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향민이 망배단에 올라 고향을 그리며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각 옆인 독개다리 입구 근처에는 지금도 “철마는 달리고 싶다”고 외치는, 그때의 시간에 멈춘 ‘경의선 장단역 증기관차 화통’을 볼 수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31일 군수품을 싣고 달리던 이 기차는 포화로 파괴되었고 반세기 가량 방치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 방염처리 및 복원과정을 거친 후 남측 군사분계선에 있던 것을 가져와 임진각에 전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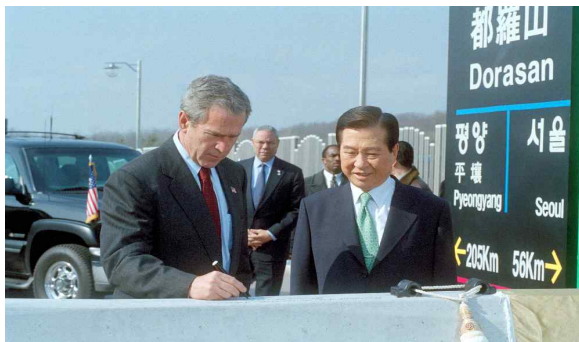
## 통일 염원의 장소, 도라산역

19 박수희

평양까지 209km밖에 되지 않지만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멈추고 만다. 끊어진 분단의 역사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향해 쉽 없이 노력해야만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인 도라산역이다.

경의선의 끝 역으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역 중 하나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로 민통선 안에 있 ▲ 도라산역

다. 이름의 유래는 신라가 패망한 후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 산마루에 올라가 신라의 도읍인 서라벌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여 '도라(都羅)'라고 명명되었다고 전한다. 해발 156m의 도라산(都羅山)에서 역이름을 따왔다. 2000년 시작된 경의선 복원사업에 의해 2002년 2월 초 도라산역이 들어서 남쪽의 임진각까지 4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방문 사진

2002년 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월 20일 도라산역을 방문, 연설하고 철도 침묵에 서명하는 행사가 진행되며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경의선 철도 복원을 위해 13,226명의 사람이 침묵 기증 행사에 참여하였다.

### 도라산역의 연혁과 의의

2000.0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어 같은 해 7.31 남북은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군부대가 앞장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지뢰를 제거하는 등의 난공사 끝에 2002.4.11 도라산역을 개통하여 2003.06.14.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경의선 철도 궤도를 연결하였다. 2007.05.07.에는 우리 측 열차가 북한으로 넘

어가는 방식으로 남북 열차 실험운행이 진행되었다. 도라산역은 서울역에서 56km, 북한 개성역까지 17km, 평창역까지 205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건축 지붕 모양은 태극무늬를 이용하여 남북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라산역이 남북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까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펼쳐져 왔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 따라 문체부는 비무장지대 지역을 전쟁과 갈등의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국내외에 세계적인 평화관광 명소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디엠지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라산역은 남북의 단절과 평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던 상징적인 장소이다.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이며, 민간인통제선 내에 있는 유일한 철도역으로 2008.12.01 북측 통행제한 조치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기 전까지 북측과의 철도 연결을 담당해온 화해와 교류의 시발점이다. 도라산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앞으로 한국철도(TKR)가 시베리아 철도(TSR), 중국철도(TCR)와 연계되는 날, 도라산역은 대륙을 향한 출발점으로 그 의미를 다시 부여받게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국으로 우뚝 서는 배경이 될 것이다.

## 북한 땅을 마주하다, 도라전망대

19 이주희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곳, 도라전망대는 송악산 관측소가 폐쇄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86년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 전망대이다. 수십 대의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개성시, 송악산, 장단역, 기정동마을 등 북한 땅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도라전망대는 꾸준히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 구 도라전망대 외관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방문과 미-북 정상 만남으로 고령의 실향민들의 방문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구 도라전망대에 적혀있는 글씨(‘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처럼 남북한의 경계선에서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 도라전망대 내부 모습

### 안보관광지로서의 의의

‘안보관광’이란 전쟁, 죽음, 재난, 재해와 관련된 현장과 역사적 사실을 탐방하는 관광 활동을 뜻한다. 도라전망대는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전후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슈가 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 유독 더 많은 관광객을 이끌었다. (2013년: 약 79만 명, 2014년: 약 156만 명)

남북분단의 현실이 아직 진행 중인 현재, 균형 있는 안보의식과 바른 역사관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종 도발 사고 및 접근이 힘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에 제한이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북한의 은밀한 남침, 제 3땅굴

19 박승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때 땅 밑으로 굴을 파서 은밀하게 침투를 하자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남침을 위해 만든 남침땅굴 또한 마찬가지다.

제 3땅굴은 북한이 남한에 침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용 터널을 말한다.



▲ 제 3땅굴의 입구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에 위치해 있으며, 문산으로부터는 12km 떨어져 있으면서 서울로부터는 5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예전에 북한군이 남침에 썼던 땅굴로, 폭은 2m, 높이 2m, 총 길이는 약 1,635m에 달하는데, 이만한 크기의 땅굴은 1시간 만에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제 3땅굴의 내부 모습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땅굴이 있다는 사실이 제 1땅굴과 2땅굴의 발견을 통해 알려진 후, 대한민국 국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남침땅굴 탐색에 나섰다. 1974년 9월에 개성 노동당 연락부 제 53 연락호송안내원 김부성씨가 월남, 귀순하여 제 3 땅굴의 존재를 알렸고, 자신이 그 일의 측량과 설계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말을 토대로 약 4년 간 2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었지만 결국 땅굴을 찾아내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런 와중에 전파 장비에는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발파음이 잡히고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조사에 나선 결과 1978년 6월 10일 새벽, 한 시추공에서 플라스틱 파이프와 함께 물이 약 10m 가량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출 현상을 시추공에 근접한 곳에서 발파가 이루어지자 그 압력으로 인해 시추공 안에 고여 있던 물이 분출하였다고 분석하였고 그 근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후 7월 7일부터 약 84일간 차

단 터널을 뚫었고, 마침내 10월 15일에 제 3땅굴을 발견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후 군 부대를 투입하여 북한이 땅굴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땅굴이 발견되었을 때 북한 당국은 남측에서 북침을 위해 파놓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굴이 폭파된 흔적과 방향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북쪽에서 유엔 측 지역인 동쪽으로 파여진 것이 밝혀졌다. 특히, 발견 당시 폭약 발파를 위한 구멍이 뚫려있었으며 3/1000mm의 상향각도로 파고 올라온 흔적을 통해 북한이 이 공사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3땅굴의 발견 이후 - 현재 북한이 뚫은 땅굴은?**

제 3땅굴이 발견된 이후, 남침땅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제 4 땅굴이나 제 5땅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7년 미 해병대가 발간한 《북한 핸드북》에 의하면,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땅굴의 수는 약 2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 평화 통일의 의지를 위한 공간, 납북자 기념관

19 권지현

## 납북의 전개과정과 납북자의 고통

6.25전쟁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활용 가치가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에 착수했고, 가택 수색을 통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공산체제에 협조하도록 방송과 신문을 통



▲ 납북자 기념관의 모습

해 선무공작을 벌였다. 이에 1950년 7월 정·관계 요인,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1차로 납북했고, 1950년 8월 중순경부터 9월 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서대문형무소 등에 가두고 있었던 자 등 일반 민간인들을 2차로 납북했다.

전시 납북자들은 강제 부역에 동원되거나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기도 했다. 피랍 과정에서 사살 등 수난을 당했으며 전쟁 중 폭격을 맞아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한, 납북 이후에 월·납북 저명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며 사상 검증을 통해 납북자들을 협상과 혹은 반동으로 규정하였다. 사상 검증에서 협상파로 규정된 사람들이나 인민군에 편입돼 전선에 나갔던 사람들의 경우 학교나 직장으로 배치하였으나 이는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반동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의 고통을 겪었다.

##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전후 납북자 지원 법률은 시행 후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와 통일부 소속의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위원회는 납북피해자 인정 및 피해 위로금 등 지급 안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의 심의 지원을 위해 2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간이 지났지만, 납북피해자 정의와 관련하여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시한 만료로 인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보호 조치 소홀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으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6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남북자 문제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첫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남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전쟁의 요충지와 전쟁 중 희생된 사람들

1. 호로고투성
2. 영국군 설마리 전투비
3. 금정굴

## 삼국시대의 DMZ, 호로그루성

19 이시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나지막한 구릉 하나가 임진강변 쪽으로 있다. 삼국시대의 DMZ인 호로그루이다. 임진강이 국경 하천역할을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던 군사지역이었지만 오늘날의 호로그루에는 평화롭고 잔잔한 느낌만 남았다. 임진강은 군사작전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삼국사기에도 여러 차례의 전투기록이 등장했다.



▲ 호로그루

평양 지역에서 출발한 고구려 군이 백제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기 위한 최단 코스는 호로그루 앞의 여울목을 건너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핵심 요충지인 호로그루는 당시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 역사적 가치



▲호로그루 전경 위성사진

호로그루에서는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 중 가장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연화문와당 6점, 와당 부착흔이 남아 있는 수키와편 10여점과 함께 용마루에 사용하던 착고기와와 치미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호로그루는 지금까지 조사된 임진강 유역 일대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 중에서는 가장 위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문서의 사용을 짐작케 하는 토제

벼루나 6세기에서 7세기에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서체로 ‘상고(相鼓)’라는 명문을 새긴 악기, 절풍 모양의 토제품 등과 함께 각종 탄화곡물과 동물뼈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과 이 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통해 볼 때 호로그루는 4

세기 말에서 5세기 초 토루나 목책 등의 초보적인 형태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었다가, 고구려가 한강유역과 충청지역으로 남진한 이후 본격적으로 석축으로 구축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호로그루는 비록 성의 규모는 작지만 이곳은 임진강의 감조구간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말을 타고 도강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유리한 위치로 호로그루는 임진강 유역의 방어와 공격작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축조 원리**

임진강 유역에는 강가 절벽에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높이 10~15m 정도의 수직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강가 절벽의 구릉에 성을 축조할 경우, 수직 절벽을 이용해 특별히 성벽을 쌓지 않더라도 적을 막아낼 수 있다. 호로 고루의 경우에도 동쪽만 제대로 된 성벽을 쌓으면 되었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을 대폭을 줄일 수 있었다.

성벽은 지반을 평탄하게 다진 뒤 1m 정도 높이로 흙을 다진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다. 성돌의 재료는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으로 약 1.8m 정도 높이로 쌓았다.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벽 아랫부분에 한 겹 더 덧대어 쌓은 보축성벽 기법을 보이고 있다.

# 동맹국의 숭고한 희생, 영국군 설마리 전투비

19 김성욱

## 설마리 전투의 발발과 전개과정



### ▲ 전투비의 전체 모습

### ▲ 한국어로 기록된 전투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UN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적의 연합군과 함께 전투를 치렀다. 이러한 연합군들은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희생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희생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설마리 전투이다. 때문에 우리는 설마리 전투비를 통해 연합군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넋을 기리고자 한다.

설마리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3일간 벌어진 전투로 파주 적성면 설마리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는 한국군 이외에도 제 29여단 글로스터 연대 제 1대대 소속의 영국군이 함께 참전했다. 설마리 전투는 235고지에서 중국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에 글로스터 고지 전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설마리 전투는 1,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전투이지만 3일 동안 중국군의 진격을 지연시켜 중국군의 서울 침공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투이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판도가 변하던 시기에 설마리 전투가 벌어졌다. 1951년 4월 22일 중국군 제 19병단이 문산-파주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글로스터서 연대의 제 1대대 즉 영국군이 지키는 마지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영국군은 이틀 동안 분전하며 중국군의 진격을 저지했지만 결국 현재 파주 적성면 설마리 일대의 고지로 후퇴하였다.

영국군이 설마리에서 중국군과 전투를 이어나가던 중 결국 중국군에 포위되자



미국 제 1군단 사령부는 병력을 보내 영국군의 구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군의 거센 공격에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미군 사령부는 영국군에서 고지를 포기하고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받은 영국군은 4월 25일 중국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500여 명이 중국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고, 60명이라는 적은 인원만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 **설마리 전투비의 건립**

1957년 6월 29일 영국군과 한국군 보병 제25사단은 설마리 전투에서 중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 산화한 영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설마리 고지 아래 암석에 전투비를 건립하게 된다.

전투비는 총 4개의 비가 부착되어있는데 위쪽 2개의 비 가운데 왼쪽에는 유엔기를 새기고, 오른쪽에는 희생된 영국군들의 부대 표지를 새겼다. 아래쪽 2개의 비는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당시의 전투 상황을 기록해놓았다. 이러한 설마리 전투비는 2008년 10월 1일 등록문화재 제 407호로 지정되었다.

## 민간인 학살사건의 아픔, 금정굴

19 이지현

### 금정굴 학살사건의 진행과정

우리는 남과 북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시작된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게 부역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학살시킨 금정굴 학살사건을 기억하고, 깊이 새겨야한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10월 9일부터 약 20일간 고양 경찰서의 지휘 아래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 등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 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황룡산 자락에 위치한 금정굴 속에 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 금정굴 학살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3일 후 고양 지역은 인민군에게 넘어갔으나, 아직 아군이 복진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라디오 방송을 믿고 피난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았다. 이에 북한군은 7월 5일 고양군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 선거를 치러 인민위원을 뽑았고, 주민들을 인민의용군으로 징집하였고, 부역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1955년10월 학살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들

알 수 없었기에 주민들이 고발하였고,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 부역혐의자들은 연행되어 각 경찰서 지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조사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그러던 중 9월에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이후 9월 28일 일산이 수복되었다. 국군이 고양에 진입한 이후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인민위원장 등 부역자들이 사살되었다. 또한 10월부터 고양 경찰서가 다시 복귀해 부역혐의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누가 부역자인지 가려내는 건 인민군이 아닌 이상 정확히

갔다. 이 연행 과정에서 고문 또한 빈번히 행해졌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서는 임의로 이들을 분류해서 몇몇은 석방하고 몇몇은 금정굴로 끌고 갔다. 금정굴은 동굴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금 채굴을 위해 수직으로 파 놓은 굴이었으며, 처음에는 굴 앞에 주민들을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 떨어뜨렸으나, 생존자가 나타나자 이후엔 굴 입구에서 총살한 후굴 속으로 던져놓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여 일에 걸쳐 학살이 이어졌다. 학살은 10월 말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개입하면서 중단되었으며, 이후 의용경찰 대원과 시국대책 위원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처벌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 금정굴 사건의 조명

1993년 시민단체들과 유족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1995년 현장 발굴을 나서 15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1999년 경기도의회는 고양 금정굴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경찰이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이후 2006년에는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금정굴 사건에 대해 경찰 책임하의 불법 학살로 인정하였다. 고양 경찰서에서도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명했고, 법원도 금정굴 유족에게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에 발굴된 유해들은 안치할 곳이 없어 서울대 병원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 후 2011년 고양시 청아공원 납골당으로 옮겨졌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2014년 하늘문 공원 납골당으로 다시 옮겨졌다. 2010년 새로 당선된 고양시장 측에서는 금정굴 유해를 안치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참고 문헌>

### 1. 파주 지역개관

-대한민국 구석구석, “파주지역”,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파주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9607](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9607),

### 2. 고양 지역개관

- 『고양군여지승람 高陽郡輿地勝覽』, 규장각도서, 1891.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양지역 고지도”, <http://www.aks.ac.kr/home/index.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양송포호미걸이”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ridx=1&tot=150#self>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양시”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고양시&ridx=0&tot=35>

- 고양시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visitgoyang/index.asp>,

### 3. 연천 지역개관

- 정호용, 『역사의 중심지 연천, 기적의 중심지를 꿈꾸다 : 경기도 연천군』, 국방부, 2019

- 연천군 홈페이지, <https://www.yeoncheon.go.kr/index.yeoncheon>

- 연천군 문화관광, <https://tour.yeoncheon.go.kr:8443/web/mai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천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1628&cid=46618&categoryId=46618>

-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연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7019&cid=55760&categoryId=55760>

- 신택리지, “경기도 연천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737&cid=58929&categoryId=58929>

- 대한민국 구석구석, “연천 송의전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11374&cid=42856&categoryId=42856>

#### 4. 6.25 한국전쟁

-6.25 전쟁 국가 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625/viewMain.do>

-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99.

- 나상렬, 『한국전쟁이 국내외 정세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전쟁기념관, <https://www.warmemo.or.kr>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2014

-“[인터뷰] 6·25 민간인 유해발굴 주도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주간조선, 2019.09.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053&aid=0000026471>

-“‘고양 금정굴사건’, ‘문경 석달사건’ 진실규명 결정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 당해 ...

명예회복 및 화해조치 국가에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06.29.

-6.25 국가 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625/viewMain.do>

## 5. 납북자 기념관

- 제성호, 「6.25 전쟁과 전시 납북자 문제」, 『본질과 현상』 20, 2010.
- 박정원, 「전후 납북자 문제의 법제도적 과제」, 『統一問題研究』 23-2, 2011.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http://www.abductions625.go.kr/index.do>
-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 세미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0946422790>

## 6. 임진각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외 6인,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1997.
- 최정규, 『죽기전에 꼭가봐야할 국내 여행지 1001』, 마로니에북스, 2010.
- 권오순, 『동시선집』, 「임진각에서」,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 두산백과, “임진각국민관광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4109&cid=40942&categoryId=31929>.
- 임진각 공식홈페이지,  
<http://imjingak.co.kr/default/company/sub2.php?tm=1&sm=2>.

## 7. 도라산역

- 유병문, 「[연재 · 통일역사기행] 임진각, 도라산역, JSA,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아가다 - 다시 태어나는 땅」, 『민족21』, 118-125.

- 전효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DMZ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정책』 73, 2018, 64-69.

- 네이버 지식백과, “도라산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98122&cid=55631&categoryId=55631>.

- 국가기록원, “김대중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도라산역 도착 기념 서명”,  
<http://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evntId=0051146919>.

#### 8. 도라전망대

- 전효재, 『안보관광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도라전망대 都羅展望臺”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6105&cid=40942&categoryId=31931>.

- 한국관광공사,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3fed4ffa-eb86-482e-936a-c5ff116ac4a9](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3fed4ffa-eb86-482e-936a-c5ff116ac4a9).

#### 9. 제3땅굴

- “北傀 板門店 제 3땅굴 現場 汶山~서울 1번國道を 노렸다”, 『한겨레 신문』, 1978.10.27.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10270032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10-27&officeId=00032&pageNo=7&printNo=10177&publishType=00020>.

- “"휴전선 땅굴20여개 화학무기시설 8곳" 美과학자協'북한핸드북'공개“, 『동아일보』, 1999.9.1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9-09-13&officeId=00020&pageNo=1>.

- 디엠지기, “안보견학”,

[https://www.dmz.go.kr/front/wantgo/tour\\_security/view/952](https://www.dmz.go.kr/front/wantgo/tour_security/view/952),

#### 10. 호로고루성

-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 :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군사』 83, 2012.

- 국립중앙과학관, “우리나라 성곽축조과학 - 고구려 - 연천 호로고루”,

<http://www.scienc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천 호로고루”, <http://encykorea.aks.ac.kr/>.

-디엠지기, “DMZ-가고싶어요-테마여행-역사탐험”,

[https://dmz.go.kr/front/wantgo/tour\\_history/view/1080](https://dmz.go.kr/front/wantgo/tour_history/view/108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33310467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333104670000)

#### 11. 파주 설마리 전투비

- 홍성후, 「한국 전쟁과 참전국들의 역할」, 『國際政治論叢』 30-2, 1990, 177-195.

-신종태, 「영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의의와 한·영 우호관계 증진 방안」, 『군사발전연구』 12-2, 2018, 147-180.

- 파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tour.paju.go.kr/user/tour/main/index.do>.

#### 12. 금정굴



- 신기철,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 인권평화연구소, 2018
-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http://gjpeace.or.kr/>.

## **지도교수님**

박구병 교수님  
조성을 교수님  
김봉철 교수님  
김종식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한상준 교수님

## **편집자**

18 문성은  
18 석재륜  
19 조정호  
19 김동휘  
19 이누리

## **제작자**

반장 18 문성은  
부반장 18 손지호  
총무 18 이주영  
19 김하연  
19 김혜성  
19 한가연  
19 이혜린  
19 김영진  
19 박수희  
19 이주희  
19 박승진  
19 권지현  
19 이시현  
19 김성욱  
19 이지현

**아주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당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더 함’**

**학생회장 18 이현석**

**부학생회장 18 안슬비**

**2019. 9**